

기고

김 중 술 전남서부보훈지청장



독립의 햇불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반만년의 세월을 가진 대한민국의 역사 중 100년의 역사. 2019년 기해년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이다.

100이라는 숫자가 가진 상징성 때문일까 싶기도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3월 1일, 지역과 세대, 그리고 종교를 뛰어넘어 모든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독립만세를 외쳤던 그 시간은 그 자체로도 충분히 특별하다는 사실을 이내 깨닫게 된다.

3.1운동은 일제강점기 독립을 위한 전국적 움직임이었고, 한민족의 독립의지를 대내외에 널리 알릴 중국 등 아시아 민족 독립 운동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익히 알려져 있는 3.1운동의 역사적 의의이다.

그리고 오늘 소개할 또 하나의 중요한 의의는 3.1운동 독립선언서에 따른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이다.

즉, 3.1운동으로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헌법에서 대한민국이 민주공화제이며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조항이 지금의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1919년 3월, 독립을 향한 열망이 국민통합의 형태로 표출되었고, 그 결과 하나의 국가에 대해 한 개인이 주인인식을 갖는 국민주권의 확립이라는 결실을 낳았다.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2019년 3월, 이 두 가지 역사적인 가치를 '독립의 햇불 성화봉송 전국 릴레이'를 통해 다시 한 번 상기시켜보려 한다.

국가보훈처는 '기억하는 100년, 기약하는 100년'이라는 슬로건 아래, 오는 3월 1일 출정식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인 4월 11일까지 총 42일간 독립의 햇불 전국 릴레이를 진행한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2019명의 봉송주자가 독립의 햇불을 들고 대한민국 전역을 발발 예정이다.

3월 1일 서울에서 출발한 주자들은 강원도와 경상도를 지나 21일 제주를 거쳐, 3월 23일 목포에 집결한다.

목포에서는 1919년 4.8독립만세 운동의 중심지인 목포정명여중?고를 기점으로 호남교차로를 지나 목포역 광장까지 약 1.1km 가량 햇불 봉송이 실시된다.

한편, 독립의 햇불 주지는 온라인 국민 공모를 통해 선발된 분들과 독립유공자 후손을 포함해 해당지역 특색에 맞는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23일 오전 10시, 애국지사 유족 및 기관장, 시민 등 봉송주자 100명이 독립의 햇불을 들고 봉송구간을 도보로 행진한다.

봉송주자를 뒤따르는 릴레이 행진 인원까지 포함해 약 1,000여 명이 독립의 햇불 릴레이에 참가할 예정이다.

독립의 햇불이 도착점에 다다른 후에는 시립합창단 공연 및 100년을 기약하는 풍선 날리기 이벤트 등 다채로운 행사도 펼쳐질 계획이다.

약 한 달 뒤 타오를 독립의 햇불이 3.1운동의 비폭력, 평화정신과 임시정부의 가치를 다시금 일깨우고 이를 계승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이렇게 100년의 역사를 기억하고 이어감으로써 국민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평화로운 세상인 또 다른 100년을 기약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다.

100년 전 국민주권과 독립을 향해 뜨겁게 타올랐던 3.1운동의 햇불이 내일의 한반도를 평화의 땅으로 물들이기를 소망해 본다.

社說

에너지정책 미래 내다봐야

국민 10명 중 7명이 원자력발전 이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젊은 연령대의 찬성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에너지정책을 펼치는데 참고해야 할 부분이 없지 않은 것 같다.

한국원자력회회는 최근 '제3차 원자력발전의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8월과 11월에 이어 세 번째다.

조사 결과 원자력발전 이용에 찬성하는 비율은 71.4%, 반대는 26.2%로 찬성이 반대보다 45.2%포인트 높았다.

특히 19~29세 젊은 연령대의 원전 이용 찬성 비율이 대폭 증가했다. 지난해 11월 2차 조사 때 원전 이용 찬성 비율이 68.9%였으나 3차 때 75.7%로 6.8%포인트 급등했다. 원전의 확대 또는 유지는 67.7%로 집계됐다. 이는 축소(31.0%)보다 37.4%포인트 높은 셈이다. 원전 비중을 줄여야 한다는 응답자 중 원전 비중을 0%로 해야 한다는데 동의한 응답자는 7.3% 수준에 그쳤다. 특히 20대에 원전 비중 0%에 동의하는 비율은 2.4%에 불과했다. 선호 발전원으로 태양광 38%, 원자력 36%, 풍력 12% 순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우리 국민은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같이 이용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 차례 실시한 국민인식 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7명은 원자력발전 이용을 일관되게 지지하고 있다. 정부는 이 사실을 유념해 국민의 뜻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에너지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탈원전정책을 기반으로 에너지정책을 수립해 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국민 다수가 원전을 기반으로 한 에너지정책의 추진을 바라고 있는 만큼 이같은 결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222-5548

차량안전 필수품 '차량용 소화기'

소방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2년부터 2018년 7월까지 7년간 차량 화재가 3만 784건이 기록되었다고 한다. 이는 하루 평균 13건의 수치이며 5인승 차량이 차지하는 비율은 47.1%로 절반에 가깝다. 이처럼 5인승 차량 화재 비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은 소화기 설치 의무를 7인승 이상인 자동차로 제한하고 있어 실효성이 낮다.

자동차 화재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가 기존 7인승 이상에서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으로 확대되고 자동차 정기검사 시 소화기 설치 여부와 작동상태 점검을 실시하는 등 자동차 화재 대비 안전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그렇다면 자

동차 화재 안전기준은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자.

첫째, 현행 승차정원 7인 이상 차량의 '소화기 설치 의무' 규정을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승용자동차로 확대하고, 소방청 형식승인을 받은 '자동차용 소화기'를 장착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승용차의 경우 운전자가 손을 뺀다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승합차의 경우 운전석 부근과 동승자가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11인승 미만의 차량은 소화기 설치 위치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화재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렵기 때문이다.

셋째, 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의 정기검사 시 소화기 설치 여부와

상태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시정권고 대상 차량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자동차 검사관리 시스템'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자기 시정권고사항을 미이행 시 과태료 및 과징금의 부과,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운전면허 신규 취득자의 교통안전교육과 여객 운수종사자의 보수교육과정에 '차량 화재 예방 및 대처 방법' 과목을 신설하도록 해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차량용 소화기 구입 시 소방청 형식승인을 받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실제 화재 발생 시에는 당황한 나머지 사용방법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용법이 간단한 스프레이형 소화기를 고려해보는 것도 좋다. 그리고 자동

차용 소화기는 화재 발생 시 초동 대처를 위한 것으로 가벼운 화재 시에는 즉각적인 사용을 해야 하나 엔진 등 자동차의 주요 부위에서 불길이 크게 번진 경우에는 무리해서 불을 끄려 하지 말고 차량으로부터 멀리 대피해야 한다.

위와 같은 제도 개선의 목적은 자동차 화재사고 발생 시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화재진압을 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제도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이다. 모든 운전자가 자동차용 소화기 설치를 강제적인 의무로 여기기보다는 자신과 이웃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는 모습을 기대해 본다.

박성모 / 보성 빌교119안전센터



신문으로 배우는 千字文

篤 도타울 독 篤 初 誠 美  
初 처음 초  
誠 정성 성  
美 아름다움 미

▷ 뜻: 무엇이든지 처음에 성실(誠實)하고 신중(慎重)히 하여야 함.

湖南新聞 本 社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번지 정도프라자 5층) 서울취재 본부: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대표전화 (062) 224-5800 편집국 (062) 222-5547 팩 스 (062) 222-5548 광고국 (062) 222-5544

“독자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화융성 문해가 있는 삶 국인이 행복한 대한민국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방을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